2022 열린 인생 14.
'광야 훈련'의 끝에 나타나는 사인은 무엇인가?

[신명기 2:30-31]
30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31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1. 광야 = 훈련의 장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명확하다.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광야는 훈련 학교이다. 훈련의 목적은 승리다. 훈련 없는 승리는 없다.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은혜'에 대한 오해다. '은혜'에 대한 오해는 사람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 사람은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은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사람을 빚어 가신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길 때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게 하신 이유'
[신명기 8:2-3]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 너를 낮추시며(겸손과 온유함으로 준비되어진 사람)
겸손하게 하신다. 겸손은 내 뜻으로 행하지 않는 온유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마태복음 21: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프라우스=온유한)의 왕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통치하신다. 온유함은 어린양의 모습이다.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린양의 순종이 겸손이며 온유함이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다.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얻은 사건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모세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겸손은 낮은 척하는 것이 아니다. 주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다. 온유함은 목자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양의 마음이다. 전적인 의지란 저항이 1도 없는 마음을 말한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고 권능과 통치가 임하는 마음이다. 광야를 통과한 자는 온유함을 상으로 얻는다. 온유한 사람이 낮아진 사람이다.

(2) 시험을 하시는 곳 - '태도'(성숙함)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2절). 시험의 덕목은 '태도'다. 광야에서도,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태도를 말한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알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마음을 싫어하신다. 위선적 마음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모르고 실패하거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울의 의도적 불순종은 심판**하신다. 성숙함은 태도로 나타난다.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태도를 지닐리 없다. 성숙과 태도는 비례한다. 훈련 받았다는 것은 성숙한 태도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3) 말씀을 먹는 존재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다(3절).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다. 읽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만나처럼 먹는 것이다. 예수님은 떡을 주실 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 주신 것이다. 만나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며 하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인생은 승리한다. 변질되지 않는다. 인간의 타락은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을 때 나타난다.

(4) 여호와를 기억하라 - 번성하게 될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
[신명기 8:11-18]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진다'(영적 원리)

하나님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를 경고하신다(12-13절). **주목해야 할 것은 14절이다. 그때 사람이 '교만'해진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와 같은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가 아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그 증거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11절).

한마디로 여호와를 잊어버린다(11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기억하라". **우리는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다**. 번성의 때에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18절).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번성의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2. 광야의 훈련 끝에서 나타나는 사인은 '승리'다.

광야의 훈련은 끝이 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신다. 그 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광야 훈련의 어디쯤 있을까 궁금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 끝의 사인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라고 말해 준다.

[신명기 2:30-31] 30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31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1) 혼의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할 때가 훈련의 끝이다.

광야는 혼이 죽는 곳이다. 그래야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영적인 사고란 무엇인가? 30절이 바로 영적인 생각이다.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어려움이다. 장벽이다. 그런데 이 장벽은 하나님께서 시혼을 이스라엘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벽을 장벽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사고다**. 혼의 사고는 장벽을 장애물로 본다. 반면 영의 사고에서 바라보는 장벽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장벽이다. 눈으로만 보는 혼의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2) 장벽이 나타나면 반드시 멈춰 다른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발견해야 한다.

고난과 장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때는 멈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통과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기도하고 있는데 장벽이 나타난다면 그 장벽은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말씀하실 것이 있는 것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3) 훈련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아는가? 승리를 경험할 때가 광야 훈련의 마지막이다.

[신명기 2:32-35] 32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33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34 그 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35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하나님은 통과하는 것을 넘어 땅을 주셨다. 승리를 맛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 응답을 맛보게 하신다. 승리를 맛본 사람이 이길 수 있다. 광야는 훈련 받는 곳이다. 긴 훈련이다. 긴 훈련의 끝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광야 학교의 졸업장을 주실 수 있다. 그 훈련의 끝은 '싸울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한다. 약속의 땅은 전쟁의 땅이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정렬된 준비된 용사가 필요하다.

'준비가 없는 이스라엘 군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전멸되었다'

[신명기 2:14-15] 14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군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멸되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 훈련의 끝은 승리다. 내 광야의 끝의 시그널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혼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은 훈련의 끝을 말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하는가? 순종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 뜻(혼의 영역)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승리'를 경험할 때가 바로 훈련의 끝이다. 광야의 끝에서 승리를 경험하자.